

KOCCA

Issue Paper

2010년 1월 4주

구분(장르)	제목	분야
심층보고	「Google vs China」 ▶ 구글의 중국마켓거냥 전략을 검토해보고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정부와 구글사의 관계의 시사점 도출	인터넷
단신기사	▶ “소니 콘솔 호전”	게임
	▶ “AP 통신 야후와 전재계약 갱신”	인터넷
	▶ “DVD 판매 부진으로 소니픽처스 감원”	영화
	▶ “미라맥스 영화 제작사 문닫아”	영화
Marketing Report	「미국 케이블 채널 HBO 케이스스터디 II」	방송

한국콘텐츠진흥원

수출지원팀 미국사무소

Google VS China

□ 구글 차이나 “Don't be Evil”



- 2010 초부터 구글은 첫번째는 Nexus One의 출시, 그리고 이번엔 중국 인터넷 검열에 맞서 사업 철수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는 두가지 뉴스로 사이버 스페이스를 달구고 있음
- 과연 구글의 속내는 무엇일까? 회사의 슬로건인 Don't be evil 때문에 검열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인가? 그동안 바이두에 뒤져온 중국 검색 시장에서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일까?

□ 구글 차이나 타임라인

- 2000년 구글의 중국어 검색 서비스 이후 그리고 2006년 구글 차이나 설립이후 구글은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

- 구글이 미국 검색 시장의 약 65%를 차지하듯이 중국에서는 바이두가 60% 이상의 검색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
- 수익뿐만 아니라 구글은 그동안 몇차례의 검색, 유튜브, 지메일 등의 서비스를 차단당할 정도로 중국 정부와의 골을 키워왔음

- 2000년 구글 중국어 검색 시작
- 2002년 8월 Google.com 중국에서 약 2주간 차단됨
- 2003년 12월 다시 Google.com 차단
- 2005년 7월 구글 전 마이크로소프트 임원 Kai-Fu Lee 영입 중국 진출 계획을 밝힘



- 2006년 1월 Google.cn을 론치하면서 검열된 검색 결과 서비스를 시작함 (Google.com 중국어 검색결과는 검열되지 않은 검색 결과를 계속해서 서비스함)
- 2006년 6월 Google.com 다시 차단 되며 Google.cn은 서비스됨
- 2007년 9월 Google.cn 수립후 18개월만에 중국정부로부터 라이선스 취득
- 2008년 2월 중국 인권 운동가인 Guo Quan 야후와 구글 의 검열을 비난하며 고소하였으나 중국정부로부터 10년형 선고 받음

- 2008년 10월 구글, 야후, 마이크로소프트 3사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공식적인 법적 요청이 있을때만 검열을 하도록 하겠다는 가이드라인 수립
- 2009년 1월 중국 정부 구글의 포르노 검색 허용을 비난
- 2009년 3월 구글 중국에 무료 음악 검색 서비스 제공 시작



- 2009년 3월 유튜브 차단.
- 2009년 4월 중국 정부 구글의 포르노 검색에 대해 다시 비난
- 2009년 6월 중국 정부 포르노 검색 허용을 이유로 구글 차이나 의 외국 사이트 검색 등의 서비스 규제, 중국 이용자들의 바이두로의 전환이 늘어남



- 2009년 6월 Google.com, Gmail 차단
- 2009년 8월 차이나 모바일 안드로이드 폰 출시
- 2009년 9월 Kai-Fu Lee 사임, 중국정부의 압력에 의함이라는 소문



- 2009년 10월 중국 작가들 구글 북검색에 대한 저작권 이슈 제기
- 2010년 1월 구글 중국 검색 사이트 검열 중단을 발표

□ 구글 실명제 거부

- 인터넷 검열에 대한 구글의 반발은 단지 중국 정부에 국한 된것은 아님
- 지난 2009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의 하루 10만명 이상 방문자 웹사이트에 대한 본인확인제 도입에 대해서 구글은 최초 긍정적 검토입장과 달리 한국 설정시 업로드를 제한함으로써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함
- 당시 유튜브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으로 한다며 누리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나, 중국에서의 검열에 동조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책만 무시한 결과라는 비난을 받음
-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명제를 거부함으로써 유튜브의 방문자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2009년 말에는 국내 진출 1년 8개월만에 판도

- 라 TV를 제치고 동영상 사이트 중 1위로 올라섬
-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거부함으로써 되려 사업의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보임

□ 구글의 속내는 무엇일까

- 2010 년 1월 21일 에릭 슈미트 구글 CEO 는 구글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
- 인터넷 검열을 받아 들일 수는 없지만, 중국시장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짐
- 정부의 정책에 반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각국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?
- 특히,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기에 Don't be evil.이라는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움
- 오히려 구글이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
- 구글의 성공을 돌이켜 보면 기존 야후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들이 일종의 편집을 통해서 인터넷의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때 구글은 오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850억불의 시가총액에 달하는 회사를 일궈옴
 - 구글이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구글의 모든 사업을 지탱하는 수익은 검색에서 발생하기때문에 오픈 네트워크와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가 구글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임
- 구글의 입장에서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, 대한민국 정부의 실명확인제 등의 조치는 바로 구글의 핵심역량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임

- 중국 사업 포기라는 강수까지 들고 나온 구글의 저의는 사업 포기라기 보다는 현재의 수익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핵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여짐

▷ 이 보고서를 작성한 Chae Kwan Lee 는 현재 UCLA Anderson 에서 MBA 전공하고 있으며 Johnson & Johnson, Mercedes-Benz 등에서 마케팅을 담당하였음